

‘스톤 페이스’...달라진 올러, 결과로 증명하다

“사고하고 진화하다”...올러, ERA 1위·다승 공동 1위

빠른 승부로 효율성 높이고, 투심·커브 활용 늘리며 변신 “승패보다는 이닝·QS”...내일 한화戰 “공격적으로 승부”



변화는 있었다. 결과도 따라왔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가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러는 지난 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빠른 카운트에서 승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투구를 이어가려는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올 시즌 12경기에서 7승 4패 평균자책점 2.39를 기록 중이다. 평균자책점(ERA) 부문 단독 1위, 다승 부문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KBO리그 2년 차. 적응은 끝났지만 고민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에는 상대 타자들이 나를 잘 몰랐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며 “타자들도 철저히 준비하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졌다”고 털어놨다.

실제 투구 패턴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보다 투심과 커브 활용 비중을 늘렸다. “제인지업을 더 연마하려고 노력했고, 커브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 활용했다”며 “투심은 공격적인 타자들을 상대로 범타를 유도하기 위해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상대를 반복해서 만나는 KBO리

그환경도 쉽지 않다.

“같은 팀을 여러 번 상대하면 데이터도 계속 쌓인다”며 “결국 창의적으로 변해야 한다. 오래 성공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다양한 방법을 준비한다”고 했다.

선발투수의 역할에 대한 생각 역시 뚜렷했다.

“승패는 투수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닝을 많이 소화하고 퀄리티스타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은 이유도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꼽았다.

“좋은 때든 위기 때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며 “미국에서는 이를 ‘스톤 페이스’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발투수가 쉽게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며 “항상 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4월24일 광주 롯데전 완봉승이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던 경기”라며 “상대 선발 비슬리와의 경쟁심도 좋은 영향을 줬다”고 돌아봤다.

올러는 오는 11일 대전 한화전 선발 등판을 앞두고 있다. 맞대결 상대는 ‘에이스’ 류현진이다.



아담 올러 <KIA 타이거즈 제공>

다승 공동 1위끼리의 맞대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한화는 노시환을 비롯해 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이라며 “지난 패배는 상대보다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경기였다.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며 공격적으로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올 시즌 한화를 상대로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남은 시즌 목표는 건강이다.

“부상 없이 시즌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꾸준히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는 것이 팀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팬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광주는 음식도 맛있고 팬들의 응원도 정말 열정적”이라며 “응원을 받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었다.

끝으로 그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응원해 주시는 팬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홍철 기자

KIA, 13일 두산戰은 ‘람사르 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경기에서 ‘람사르 데이’를 개최한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람사르 데이는 국내 최초로 프로야구단과 환경 분야 국제 기구가 함께 펼치는 환경 캠페인으로, 팬들에게 환경 보호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선수단은 람사르 협약의 상징색인 청녹색과 습지를 형상화한 패턴을 활용한 람사르 데이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사진) 유니폼에는 하랑이 패치와 함께 습지 보전

메시지를 담은 ‘I ♥ Wetlands’ 문구가 새겨진다.

람사르 센터는 이날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에게 람사르 데이 기념구과 키링을 나눠준다.

홍보부스에서는 국제환경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습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플로깅(쓰레기 줍기) 세트도 배포하며 경기 전과 중으로 플로깅을 인증하는 전광판 이벤트도 실시한다.

경기 중에는 습지 보전 퀴즈 이닝 이벤트를



통해 람사르 기념 유니폼을, SNS 이벤트를 통해 사인볼을 각각 증정한다. 한편 KIA는 람사르 센터와 연계를 통해 타이거즈 키즈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광주 장륙습지를 탐방하는 교육형 CSR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람사르 데이와 관련된 세부 이벤트 정보는 구단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전남·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동호인 <광주시체육회 제공>

국군체육부대 선수단, 빛고을서 재능기부 클리닉

국가대표 권순우 등 10여명 8-10일 유망주·동호인 100명 원포인트 레슨

국군체육부대 테니스팀이 광주지역 엘리트 유망주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원포인트 클리닉을 열어 뜻깊은 재능기부에 나섰다.

광주시테니스협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8-10일 광주지역 테니스장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살레시움중·고 선수 15명과 강진동초 선수 2명 등 총 17명의 엘리트 유망주를 대상으로 특별 클리닉이 열렸다.

이어 9일 오전에는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일반 동호인 60명을 대상으로 레슨이 진행됐고, 같은 날 오후에는 울곡초 선수 16명과 봉선여중 선수 4명 등 20명의 학생선수가 국가

대표급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영주종합체육단지 전천후테니스장에서 동호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감성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국군체육부대 정성운 감독을 비롯해 권순우, 홍성찬, 정운성, 신우빈 등 국가대표 선수 4명을 포함한 정예 선수단 10여 명이 직접 코트에 나서 참가자들을 지도했다.

정성운 국군체육부대 테니스팀 감독은 “테니스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육성, 동호인 재능기부를 통해 테니스 발전에 기여하고 국군체육부대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광주 출신 감독으로서 권순우 선수의 광주오픈 우승이라는 뜻깊은 인연까지

광주FC, ‘공수 겸비’ 수비수 배진우 영입

측면 경쟁력 강화

프로축구 광주FC가 젊은 측면 자원을 영입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광주는 9일 “서울 이랜드 FC 등에서 활약한 바 있는 풀백 배진우(24)를 영입하며 수비 보강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3년 K3리그 파주 시민축구단에 입단한 배진우는 2025년 K리그2 서울 이랜드에서 프로 무대에 입성, 리그와 코리아컵 포함 총 27경기에 출전해 팀의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광주 유니폼을 입은 배진우 <광주FC 제공>

배진우는 빠른 스피드와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강점인 측면 자원으로, 공격 상황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측면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주는 유형의 선수다.

또한, 측면 경합 및 대인 대응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지만, 좌우 측면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광주의 측면 강화 및 전술적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된다.

구단은 “배진우는 우수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대인 경합 능력이 강점인 풀백으로 공

중을 경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팀에 부족했던 높이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해 영입하게 됐다”며 “전술적 유연성과 팀 밸런스 강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진우는 “광주에 입단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K리그 무대는 처음이지만 구단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경기장에서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 기자

전남·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동호인

김천서 우정 나누고, 화합 다진다

전남과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김천에서 스포츠로 화합의 장을 펼친다.

전남도체육회는 9일 “10-12일 김천시 일원에서 2026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연계해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 90명으로 구성된 전남선수단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파크골프 등 6개 종목 친선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한다.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는 영·호남 간 상생협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상호 방문 방식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대표적인 체육 교류 사업이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직지사에서 환영식을

갖고 직지사사과 김천시립박물관을 탐방한 뒤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환영연에 참석한 다.

11일에는 ‘2026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식 참석을 시작으로 환영 오찬, 생활체육 교류전, 환영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등을 방문해 김천의 역사와 문화 체험으로 2박3일간의 교류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은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이끄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전남과 경북 어르신들이 우정을 나누고, 영·호남 상생발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